

2016학년도 인하대학교 논술 모의고사 인문계열
해설 - 출제 의도, 예시 답안, 평가 기준

■ 문항 1

1. 출제 의도

이 문항은 글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이론을 적용하여 현실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글의 독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요지파악 능력이다. 또한 현실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한 개념 및 일반론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글을 작성하는 것은 논술에서 요구되는 기본 능력이다. 이런 능력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 문항의 출제 의도이다.

먼저 [문항 1 - 가]에서는 장문의 내용을 제시하여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 핵심 논지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게 하였다. [문항 1 - 나]에서는 주제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한 개괄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데에 활용하게 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상세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여 배경지식을 많이 동원하지 않고도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게 하였다.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든지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수업과 생활, 교과서 등을 통해 자주 접하는 논제 중에서 문제를 출제했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과학』, 『미술과 삶』, 『미술감상』, 『경제』 등을 제시문에 활용하였고 고등학교 생활, 특히 공부 방법 및 진로 탐색과 관련이 있는 융합과 전문성의 문제를 이번 문항의 주제로 삼았다.

2.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융합이 강조되는 현실과 그것의 문제점, 그리고 참된 융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문 간의 융합, 그리고 융합형 인재의 양성은 이 시대의 당위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융합에 반대하거나 온전한 융합을 이루어 내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참된 융합을 이루어 내기 위한 연구와 교육의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아래 [문항 1-가]의 예시답안을 참고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인문학자들의 자연과학에 대한 물이해를 비판하기 위한 앨런 소칼의 ‘속임수’를 통해 선 부른 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는 <수직형>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전문성에 너무 치중하면 융합을 제대로 이루기 힘들다는 점에서 <수평형>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제시문 (다)는 예술과 과학의 다양한 융합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뛰어난 예술가는 과학에 조예가 깊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 지식이 예술 분야에 적용되어 많은 성과를 내었다는 점에서 <수평형>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기까지 생물학 이외의 다른 분야의 지식과 이해가 미친 영향에 대해 쓰고 있다.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인식의 혁명을 가져온 다윈의 저작이 이른 시기의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가능했다는 점에서 <수평형>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현미경 제작자에서 출발하여 점차 생물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안토니 반 레벤 후크의 사례를 보이고 있다.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쌓은 뒤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해 갔다는 점에서 이 글은 <수직형>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3. 논제 해설 및 예시 답안

[문항 1 - 가]

제시문 (가)의 내용을 300±50자의 범위 내에서 요약하는 논제이다.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된다. 다음과 같은 답안이 가능하다.

전문 지식을 강조하던 예전과는 달리 현재는 각 분야에서 융합이 대세이다. 대학에서도 연구와 교육에 있어 융합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과정이 만들어져 왔는데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사실 사회 분위기와는 달리 지식인들은 전문성의 약화를 우려하여 대부분 융합에 반대한다. 그러나 전문성과 융합은 상충되기보다는 상보적이어서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바이다. 중요한 것은 개인, 연구집단, 연구분야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자신만의 정체성과 다양한 지식의 융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가 하는 융합의 방법에 대한 모색이다. (띄어쓰기 포함, 300자)

[문항 1 - 나]

<제시문>을 참고하여 <다음>에 제시된 <수직형>과 <수평형> 중 한쪽을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글을 작성하는 논제이다. 두 유형 중 하나를 택하고 왜 그 유형을 선택했는지를 (나)~(마) 중 제시문 둘 이상을 참고하여 두 가지 논거를 들어 설명하되, 예상되는 반대 의견을 쓰고 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답안이 가능하다.

* <수직형>을 선택한 경우: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 수직형을 선택하겠다. (바)를 보면, 평생 현미경을 제작하는 일에 몰두했던 레벤후크의 사례가 나온다. 그는 현미경 제작이라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취를 이루었고 그 과정 속에서 연관 분야로 점차 관심 영역을 넓혀갔기에 생물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이 융합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사실 융합은 비전문적이거나 교양에 불과한 지식들의 상호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비전문적인 교양이 학문적인 깊이 없이 남용될 때에는 (나)에 제시된 소칼의 가짜 논문 소동처럼 코미디로 그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 분야에 대한 확실한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채 어설픈 융합만 강조한다면, 이는 융합이 아니라 그저 ‘어설피고 비전문적인 지식들의 위험한 야합’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다)를 보면, 뒤러, 코페르니쿠스, 파스퇴르 등 과학자이자 예술가였던 위인들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에 근거하여 수평형이 더 낫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사례들은 그야말로 예외적인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과학과 예술은 각각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또, (라)에 제시되어 있듯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었던 다윈의 학문적 여정을 근거로 수직형을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윈의 경우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도록 생물학이라는 하나의 중심 분야에 대한 관심을 평생 유지하면서 도중에 우연히 만난 몇 가지의 사례들을 통해 학문적 비약을 이룬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 (띄어쓰기 포함, 802자)

* <수평형>을 선택한 경우: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수평형이 나은 방법이다. 이는 『종의 기원』의 저자 다윈의 예를 통해 증명될 수 있다. 만약 다윈이 오랜 세월 생물종의 분류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 분야의 전문성 배양에 힘썼다면 전문가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세계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혁명을 가져오는 데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혁신적 사고는 기존의 생물학적 지식 위에 지질학, 사회과학, 문학 등을 차례로 쌓은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분야들을 함께 아우른 데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수평형이 낫다는 점은 주관적인 직관에 의존하는 예술 분야와 객관적인 논리를 추구하는 과학 분야가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발전해 왔다는 점을 통해 또한 알 수 있다. 개인의 차원에서 뒤러, 코페르니쿠스, 파스퇴르 등 혁신적 과학자나 예술가는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논리적 이성과 창의적 직관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었고 이 두 능력의 상호작용으로 기존의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융합하는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수평형에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로 관심 분야만 다양화하는 것은 진정한 융합에 이르지 못할 수 있음을 소칼의 가짜 논문 소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소칼이 비판한 것은 어떤 분야에 대한 깊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태도이지 다양한 분야의 선택 자체는 아니다. 그의 비판을 받았던 학자들이 인문학뿐 아니라 자연과학에도 일찍이 관심을 갖고 두 분야를 함께 연구했다라면 오히려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띄어쓰기 포함, 800자)

※ 제시문 내용 중 각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수직형> 선택의 논거:

(나)

- 소칼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제작한 엉터리 논문을 관련 학술지에 신게 함으로써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 쓴 글 모두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 인문학자들이 과학 전문용어를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마구 사용하여 터무니없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 이 사건은 과학의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무지한 인문사회과학자들이 함부로 과학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을 따끔하게 혼내준 사건이기도 하다.

(마)

- 레벤후크의 현미경은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렌즈는 남달랐다.
- 레벤후크는 현미경을 제작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실제 활용을 위한 시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레벤후크는 비록 전문과학자가 아니라 현미경 제작공이었지만, 평생 동안 현미경의 성능을 계속 향상시키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당시 어떤 생물학자들보다도 더 훌륭한 발견과 연구 성과를 냈다.

* <수평형> 선택의 논거:

(나)

- 근본적으로는 좁아질 대로 좁아진 인문학의 시야로 자연과학을 바라보려 하는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다.

(다)

- 알브레히트 뒤러는 예술가이면서도 재능 있는 과학자였고,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와 루이 파스퇴르는 과학자이면서 타고난 예술가였다.
- 물리학자인 제임스 맥스웰은 전기장의 개념을 그림으로 가시화하였으며 컬러 사진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다.
- 뉴턴, 구텐베르크, 뤼미에르의 업적은 예술과 과학이 창조성이라는 공통된 정신작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조성의 발현에는 뇌에서의 '시각화 과정'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 고대 그리스의 미술과 건축, 19세기 신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 등은 예술과 과학은 아이디어와 형상을 탄생시킨 사례를 보여준다.

(라)

- 다윈이 비글 호 여행 중에 읽은 지질학자 라이엘의 『지질학 원리』는 『종의 기원』 저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 귀국 후 맬서스의 『인구론』을 읽은 다윈은 생존 경쟁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 존 밀턴의 시집 『실락원』을 통해서 밀턴의 사유와 상상력, 그리고 밀턴이 근거한 기독교 성서의 어휘를 교묘하게 빌려 진화론을 펼침으로써 당대 독자들에게 충격적인 과학적 사실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했다.

4. 제시문 출전

- (가): 고등학교 『경제』(교학사), 206쪽 활용, 관련 자료에서 발췌, 수정.
- (나): 고등학교 『미술감상』(경상북도교육청), 140쪽 활용, 관련 자료에서 발췌, 수정.
- (다): 고등학교 『미술과 삶』(지학사), 34-35쪽과 관련 자료에서 발췌, 수정.
- (라): 고등학교 『과학』(더텍스트) 220쪽에서 발췌, 수정.
- (마): 관련 자료에서 발췌, 수정.

5. 평가 기준

[문항 1 - 가] (총 20점 만점)

(1) [기본 조건 충족]

- 다음 5개의 핵심내용이 들어 있어야 함.

■ 연구와 교육에서 융합이 강조되는 현실
■ 융합적 연구와 교육의 실효성 문제
■ 융합에 대한 비판과 우려
■ 융합에 대한 그릇된 이해(전문성과 융합의 상보성 간과) 비판
■ 진정한 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

(2) [논리성]

- 제시문의 논지를 고려하여(제시문의 내용 왜곡이나 제시문 이외의 내용 추가 없을 것) 분량 배분을 잘 하고, 문장의 연결(접속사, 지시어 등 포함), 논리적 전개가 매끄럽고 요약문 자체가 하나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3) [형식 요소]

- 제시문의 문장을 원래의 문장 형태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함.
- 논평식 서술(예: “제시문 (가)는 …라고 하고 있다.”)을 하지 말아야 함.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규범을 지키고 어휘나 문장이 정확해야 함.
- 제시된 분량을 지켜야 함.

[문항 1 - 나] (총 50점 만점)

- 논술문의 기본 요건인 명확한 견해, 일관된 주장, 설득력 있는 근거, 논리적 체계가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임.

(1) [기본 조건 충족]

-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문제의 논점(지식융합 인재가 되기 위한 수직형 방법과 수평형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을 정확히 파악함.
 - 제시문 (나)~(마)에서 1개 이상 활용하여 첫 논거를 서술함.
 - 제시문 (나)~(마)에서 또 다른 1개 이상 활용하여 둘째 논거를 서술함.
 - 자신의 주장에 예상되는 반대 의견(반박)을 쓰고 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재반박) 내용을 포함함.(반박과 재반박은 글의 어느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고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아도 됨.)

(2) [논리성]

-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더 좋음.
 - 논거가 적절하고 <다음>에 제시된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서술됨.
 - 반대 의견(반박)과 그에 대한 재반박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
 - 글 전체가 선택한 입장을 중심으로 일관성이 유지됨.
 - 문장 구성, 문장의 연결, 논리적 전개가 탁월함.

(3) [형식 요소]

-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혀야 하고 한쪽만 선택해야 함.
 - 쓸데없는 서론 혹은 결론을 붙이지 말아야 함.
 -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 적지 말아야 함.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규범을 지키고 어휘나 문장이 정확해야 함.
 - 제시된 분량을 지켜야 함.

■ 문항 2

1. 출제 의도

[문항 2]는 제시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자료에 나타난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출제하였다. ‘고용 없는 성장’이 세계 경제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고용 감소 및 고용 증가 속도의 둔화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제조업 및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과, 기계화 등 산업구조 및 경제 환경 변화와 맞물린 결과로 풀이할 수 있겠다. 금번 출제에서는 자료 분석을 통해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를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맞추고자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이슈를 선정하였고 경제 교과서를 인용·활용하였다.

2. 논제 및 자료 해설

논제는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고용 증가 속도의 둔화라는 판단의 근거를 찾고, 그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요인을 노동시장 및 산업구조에서 찾아낼 것을 요구한다. 이 논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어진 자료 가운데에서 문제 해결에 적합한 자료(<자료 1>, <자료 2>, <자료 4>)를 골라내야 한다. 다음으로는 선발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용 증가 속도의 둔화라는 판단의 근거와 그 주요 요인을 분석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된다.

<자료 1>은 제조업, 서비스업 및 건설업 등 산업별 생산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에서 보면 비교 대상인 2000년과 2010년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생산액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기타를 제외하면) 생산액 비중이 비교 대상 기간 중 유일하게 증대한 산업임을 알 수 있다.

<자료 2>는 2000~2010년 중 산업별로 취업유발계수 (시계열 자료의) 추이를 보여준다. 취업유발계수란 해당 산업의 생산이 10억원 증가할 때 고용이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말한다. 전체 산업에서 취업유발계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은 매 구간별(2000, 2005, 2010)로 전체 산업 평균치를 하회함(단, 건설업이 2010년에는 평균치를 다소 상회)에 따라 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 감소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여 산업별 생산액이 증가하더라도 취업유발계수 저하 속도가 빠를 경우 그 현상은 고용 증가 속도의 둔화라는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앞의 <자료 1>과 연계하면 제조업의 경우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다, 2000~2010년 중 유일하게 산업별 생산액(비중)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유발계수가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어 취업자 수 증가율 둔화(또는 고용탄성치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처럼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 유발이 낮아진 데에는 기계화 및 설비자동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다음으로 설비자동화 등의 영향을 받은 업종으로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유추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료 3>은 여성취업자의 연령별 비중 추이이다. 주어진 도표에서는 1999년과 2009년을 비교하고 있는데, 2009년에는 1999년과 비교해 볼 때, 30대 이상의 연령에서 여성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교는 여성취업자의 평균 연령이 증가한 것을 암시하는데 이 사실은 고용 증가 속도의 둔화라는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불충분하다.

<자료 4>는 1970~2012년 중 경제성장률, 취업자 수 증가율, 고용량 탄성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성장률(GDP성장률)의 경우 구간별로 하향세가 뚜렷하여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자 수 증가율도 해당 구간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여 양 수치간의 비율인 고용탄성치(취업자 수 증가율/경제성장률)는 소폭이지만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 4>는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고용 증가 속도가 느려졌다는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자료 5>는 2005~2014년 중 청년층과 고령층의 인구 추이를 나타낸다. 자료에서 청년층의 인구는 완만한 감소세를, 그 반대로 고령층 인구는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인구의 감소는 경제활동 인구나 고용자 수 감소를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는 있겠으나, 고용 증가 속도의 둔화라는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불충분하다.

3. 예시 답안

고용 증가 속도 둔화라는 판단의 근거는 <자료2>와 <자료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자료4>를 보면 1970년~2012년에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취업자 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밀돌고 있어 GDP 성장률 대비 취업자 수 증가율인 고용탄성치가 더욱 빠르게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2>의 취업유발계수도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 산업 평균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고용 증가 속도 둔화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요인은 <자료1>과 <자료2>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자료2>에서 전체 산업 평균과 각 산업별 수치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모든 연도에서 지속적으로 전체 산업 평균치보다 낮기 때문에 제조업이 전체 수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자료1>의 산업별 생산 비중의 추이를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2000년과 2010년을 비교하면 기타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늘어났다. 즉, 서비스업과 함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제조업의 비중이 더욱 늘어남에 따라 제조업의 낮은 취업유발계수와 그 지속적 하락이 전체 산업의 고용 증가 속도 둔화 현상을 주도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띄어쓰기 포함, 600자)

4. 자료

<다음>: 고등학교 『경제』(천재교육), 149쪽에서 발췌, 수정.

- (1): 한국은행
- (2): 한국은행
- (3): 통계청
- (4): 고등학교 『경제』(천재교육), 149쪽에서 인용, 현대경제연구원.
- (5): 통계청

5. 평가 기준

(1) [핵심 내용]

- 분석의 근거로 <자료 1>, <자료 2>, <자료 4>를 선택하고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함.

① 판단 근거에 대해 아래 표의 핵심을 포함해야 함.

자료	핵심 내용 (채점 포인트)
<자료2>	- 취업유발계수가 전(全) 산업에서 하락
<자료4>	- 경제성장률도 둔화되고 있지만, 취업자 수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하회함에 따라 GDP성장률 대비 취업자 수 증가율인 고용탄성치가 둔화됨을 지적

② 주도적 요인에 대해 아래 표의 핵심을 포함해야 함.

자료	핵심 내용 (채점 포인트)
<자료1>	- 전체 산업 생산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 달리 유일하게 생산 비중이 증대했음을 지적. - <자료 2>와 연계해 생산 비중이 증대한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매 구간별로 (산업 평균치를 하회하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고용률 저하를 주도한 것을 유추.
<자료2>	-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산업 평균보다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지적.

(2) [논리성]

-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자료와 주장 사이를 설득력 있게 연결해야 함.
-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글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함.

(3) [기본 조건]

- 자료를 언급해야 하고 적합한 자료에 근거해야 함.
- 제시된 분량을 준수해야 함.

(4) [형식 요건]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어휘와 문장의 정확성과 명료성 등 한글 답안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해야 함. 또 단위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함.